

빼앗긴 조국, 그날 함성... “우라 코레아” 고려인 만세운동

고려인마을, 3·1절 107주년 기념식 조상의 땅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해 “지켜낸 나라 기억하고 이어갈 것”

“우라 코레아(대한민국 만세!)” 3·1운동 107주년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거리. 낡은 벽돌담과 키릴 문자가 적힌 간판 사이로 3·1 만세운동과 3·17 연해주 만세운동 거리행진 재현을 위한 크고 작은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꼈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들이 장을 보러 오가는 거리지만 이날만큼은 함성 가득 울려 퍼지는 만세운동의 무대가 됐다.

검정색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여민 고려인 동포들과 주민, 학생들이 태극기를 쥐고 골목을 가득 메우면서 고려인마을 좁은 골목이 100여 년 전 연해주의 거리로 되돌아갔다.

고려인문화관을 거쳐 다모아어린이공원으로 향하는 만세 운동 행렬이 만들어지자 일본 순사로 분장한 주민들이 나타나 행렬과 대치했다. 모형 총을 앞세우고 행렬을 막아서는 순사들에 맞서면서 주민들의 만세 물결은 더욱 거세졌다.

사화자의 선창에 맞춰 울려 퍼진 만세 삼창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조국을 떠나 연해주로 건너가야 했던 선조들의 설움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소환하는 의식을 방불케 했다. 고려인마을은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3·1 만세 운동 107주년 기념 행사와 연해주 고려인 만세 운동 103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빼앗긴 조국, 그날의 함성”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 이천영 고려인마을 목사, 마을 주민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07주년 3·1만세운동 기념일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 3·1만세운동 기념 재현행사가 열리고 있다. /뉴스시스

기념식은 국내 항일 투쟁인 3·1운동 107주년과 해외 동포들이 주축이 돼 펼쳐진 러시아 연해주 만세 운동 103주년을 기리는 취지로 열렸다.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 출발하는 만세 운동 재현 거리행진을 시작으로 흥분도공원에서 기념공연, 국민이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내·외빈과 마을 주민들은 거리행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만세, 우라 코레아” 등을 외치면서 100여 년 전 항일운동 당시의 분위기를 되살렸다.

특히 고려인마을에서의 만세 운동 재현은 해외에서 펼쳐졌던 동포들의 항일 운동을 기리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해외 항일 투쟁 거점 도시였던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내 신한촌에서는 1919년 3월17일 최초의 만세 운동이 전개됐다. 동포들은 국내에서 펼쳐진 만세 운동

동처럼 거리로 나서 행진하며 대한독립을 부르짖었다.

이에 일본군은 연해주 만세 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가와 한인 동포들에 대한 탄압 수위를 올렸다.

일본군은 이듬해인 1920년 4월3일 신한촌을 습격하고 한인 지도자 300여 명을 수감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동포들을 한글학교에 가두고 불을 지르는 등 학살을 서슴치 않았다. 일본군의 만행 탓에 신한촌에서는 1922년까지 3·1운동을 재현하거나 기릴 수 없었다.

연해주에서 3·1운동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은 1922년 10월 독립군과 러시아 혁명군이 일본군 토벌 작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부터다. 동포들은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을 확인, 이듬해부터 다시 3·1운동을 기렸다.

조국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뭉쳤던

동포들은 1937년 스탈린의 탄압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돼 뿔뿔이 흩어져 오늘날 후손 고려인들로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고려인들은 조상들의 만세운동을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주민 박실바(70·여)씨는 “오래전 일본의 탄압 아래에서 고생한 조상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며 “동포들이 한국에 모여 함께 만세를 외칠 수 있게 돼 감사하면서도 벅차다”고 말했다.

시인 김블라디미르(70)씨도 “107년 전 조상의 땅에서 울려 퍼진 만세를 기리고자 시를 써서 발표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가 겪은 조국 탄압의 아픔을 이해하고자 하는 심정이었다”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절박함이 아니라 지켜낸 나라를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희생·파산 빠르게” 광주회생법원 개원... “법관 적다” 우려도

호남·제주권 회생·파산사건 신속 처리·편의 향상 기대
법원장·법관 6명... 기존 지법 파산부는 5명, 증원 ‘미미’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도맡아 심리하는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개인 또는 기업이 빠르고 전문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지만, 법관 증원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광주회생법원이 각급 법원 설치·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일 개원했다.

광주회생법원에는 초대 김성주 법원장

을 포함해 법관 6명이 배정됐다.

개인 또는 법인의 회생·파산·파산 관련 민사 사건 심리를 도맡는 28개 합의 또는 단독 재판부로 편성됐다. 법원장도 법원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 1부와 민사2부(파산 2부 사건 관련 민사·신청 심리) 재판장을 직접 맡는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광주회생법원 개원은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에 맞춤형 회생 절차가 제공되면 경영 정상화와 재기도 앞당길 수 있다. 때로는 법원이 파산을 빨리 결정해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도산 분야 특화 실무 준칙도 준용하는 만큼, 회생 또는 파산에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회생법원 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광주지법 내 파산 사건 심리를 맡는 법관은 5명이었다. 다만 일부는 타 민사 사건 심리로 겸하고 있어 직제상 파산 사건 전담 법관 실질 정원은 3.5명이었다. 개원 준비 기간 중에는 파산 전담 법관

정원 3.5명의 2배 수준인 7명에서 법원장 포함 9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추계도 있었지만 이번 인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법관이 적으면 재판부와 회생·관리·조사위원 등 관련 인력까지 덩달아 축소 배정되고 회생법원 자체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에는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기대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권역 회생법원으로서 향후 늘어날 사건 수까지 감안한다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회생법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지만 안착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회생·파산 사건 전문 법원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예상보다는 조직 규모가 적다. 광주지법 기존 심리 사건이 이송되기 시작하면 개원 초기부터 격무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 선거사무소 ‘명당’ 열풍

북구 두암사거리·서구 풍금사거리 등 요지 각축전
당선인 사용 건물 주목... “인지도·조직력 과시 포석”

6·3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광주 지역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명당’ 선거사무소 확보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달 3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사무소를 잇따라 개소하고 있다.

순습계 이름을 알리기 위해 대체로 가시성이 뛰어난 대로변이나 사거리 등 교통이 편리한 요지에 사무소를 차렸다. A빌딩 사무실은 지난해 북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송승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선점했던 자리로, 최근 김 예비후보와 단일화하면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빌딩은 과거 여러 차례 당선인을 배출한 곳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성공한 현직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선거사무소로 사용했으며, 박광태 전 광주시장 역시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차린 뒤 당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구 선거판의 ‘명당’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와 함께 A빌딩이 위치한 무등도서관 사거리 일대에는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사용해온 사무실도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고속도로와 말바우시장 사이 왕복 6차로에 위치한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광주 서구에서는 풍금동 풍금사거리 B한방병원 건물에 북구 두암동 A빌딩에 버금가는 입지로 평가된다.

B한방병원은 민주당 천정배 전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를 차렸던 곳이다. ‘4선’ 지역 기초의원 역시 같은 빌딩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선 기운’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B한방병원에 누가 입주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반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이강 서구청장이 선거사무소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소 ‘명당’은 가시성과 접근성 확보라는 전통적인 조건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광주송정역과 가깝고 영광·함평·선운지구로 향하는 길목인 영광동사거리, 첨단·수완·신창지구 등이 주요 입지로 꼽힌다.

이미 영광동사거리에는 광역의원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한편, 과거 당선인이 사용했던 장소를 다시 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직 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해 무주공산이 된 광주 북구에서는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일대가 선거사무소 ‘명당’으로 거론된다.

우선 김동찬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최근 무등도서관 사거리 인근 A빌딩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차렸다. A빌딩 사무실은 지난해 북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송승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선점했던 자리로, 최근 김 예비후보와 단일화하면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후보 당시 사용했던 건물도 있다. 현재는 황경아 남구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해당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상태다.

광주 동구에서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지나는 학동 남문로 일대가 전통적인 선거사무소 입지로 꼽힌다. 인접한 화순과 남광주시장을 오가는 차량과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보자들의 ‘명당’ 선점 전략은 유동 인구 확보라는 현실적 계산에 더해, 과거 당선인의 상징성을 기대하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입지는 단순한 사무 공간을 넘어 후보 인지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 전략 요소”라며 “유동 인구가 많고 노출 효과가 큰 장소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치권 인사도 “개소식 시기와 사무실 위치만 봐도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어느 정도 읽힌다.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것 자체가 조직력 과시의 의미도 있다”며 “‘명당’이라는 표현에는 단순한 미신적 의미보다도 유권자에게 익숙한 공간이라는 점에 따른 심리적 신뢰 등 현실적 판단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A빌딩이 위치한 무등도서관 사거리 일대에는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사용해온 사무실도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고속도로와 말바우시장 사이 왕복 6차로에 위치한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광주 서구에서는 풍금동 풍금사거리 B한방병원 건물에 북구 두암동 A빌딩에 버금가는 입지로 평가된다.

B한방병원은 민주당 천정배 전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를 차렸던 곳이다. ‘4선’ 지역 기초의원 역시 같은 빌딩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선 기운’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B한방병원에 누가 입주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